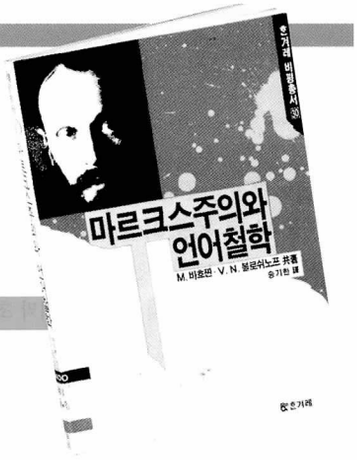
언어의 물질성 깨우쳐준 책

M. 바흐찐 외의《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송기한 옮김
한겨레/A5신/238면/4800원

바흐친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다. 고3 때 같은 반이었고 다른 대학 영문과에 진학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다. 방학 때 놀지 말고 독서토론이나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었다. 일 벌이는 걸 좋아하는 나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커피숍에서 만난 우리는 방학 동안 읽을 책들을 의욕적으로 뽑아봤다. 그 첫 책으로 정한 것이 바로 바흐친의《장편소설과 민중언어》(전승희 외, 창작과비평사)다. 그런데 이 2인 독서모임은 우습게도 토론회 한번 열지 못하고 그 사흘 뒤인가 해체되고 말았다. 친구에게 갑자기 벌이가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긴 것이다. 친구의 집안 사정을 모른 나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아쉽지도 않았다. 이틀 동안 겨우 수십 페이지를 읽었는데, 한달이 가도 다 읽어낼 성싶지 않게 내겐 어려운 책이었던 것이다.

이 책을 다시 읽은 것은 이십대 중반 무렵이다. 마르크스주의 문학이론서들을 많이 볼 때였다. 민중적이고 진보적인, 그러면서도 문학적 향취가 뛰어난 바흐친의 독특한 문체에 나는 빠져들었다. 그리고 바흐친의 또 다른 책이 없나 하고 찾아다녔는데 잘 보이지 않았다.《바흐친과 문학이론》(여홍상),《대화적 상상력》(김욱동, 이상 문학과지성사) 등의 소개서들만 구해서 읽었을 뿐이다. 바흐친 평전인《바흐친》(케네드 클라크, 이득재, 문학세계사)은 최근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눈독만 들였을 뿐 아직 읽지는 못했다.

바흐친과 볼로시노프가 함께 쓴《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한겨레)도 정말 우연찮게 만났다. 교수님 연구실에 상담 때문에 갔다가 서가에 꽂힌 걸 본 것이다. 이게 언제 나왔나 하는 마음에 판권을 보니 1988년 초판을 찍었고, 1994년에 4판을 펴냈다고 써 있다. 하지만 당시는 절판된 상태여서 도서관에서 빌려 제본을 했다. 내가 책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표시하는 방법은 밑줄을 긋거나,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세로로 줄을 긋거나, 아니면 문장 시작 부분에 체크 표시만 살짝 하는 세가지 정도다. 이 셋을 번갈아가며 하는데, 밑줄 긋던 시절의 책들은 다시 보기 민망할 정도로 망가지곤 한다. 다시 읽어보기 위해 펼쳐든 이 책도 마찬가지여서 왜 그랬는지 한숨밖에 안 나온다.

바흐친의 이 책은 언어는 언어학자나 신경 쓸 문제라는 미몽에 빠져 있던 나를 흔들어 깨웠다. 그는 과감하게도 언어가 물질이라고 선언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말하는 랑그니 파롤이니 하는 골치 아픈 얘기들만 듣다가, 언어가 신발이나 전화기처럼 물질적 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졌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의 의식도 일종의 물질이라고 말한다. '너무 막 나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바흐친의 의도는 "의식 또한 언어를 매개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역으로 의미를 떼어낸 순수하고 중립적인 기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맞는 말이다.

바흐친의 언어철학을 현대 언어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언어에 대한 접근은 언제나 '화용론'(話用論)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말은 서로 대화하라고 있는 것이지, 혼자서 중얼거리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세상의 모든 꽃(기호)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에게 와서 비로소 꽃이 되니까.

또 이 책은 언어의 역사성과 계급성을 일깨워준 소중한 책이다. 바흐친은 소쉬르가 공시언어학과 통시언어학으로 언어학을 구분하는 건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한다.

"통시적인 견해를 가진 언어사가에게 공시적 체계라는 것은 실재하지 않는다. 집필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는 시이저에게 라틴어는 고정되고 자기동일적인 규범들의 명백한 체계로 보였겠지만, 라틴어사가들에게는 시이저가 집필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언어변화의 계속된 과정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언어의 규칙이나 규범을 시간적 흐름에서 떼어낸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바흐친은 계속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언어학의 연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어는 어떤 계급이 사용하는지, 어떤 철학에 의해 구사되는지에 따라서 그 농도와 쓰임새가 달라지며, 이쪽에서는 힘을 썼다가도 저쪽으로 가면 맥도 못 추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때에 따라서는 언어 자체가 '계급투쟁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구조주의 언어철학이 마르크스주의 언어철학에 '철퇴'를 맞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언어의 과학적 대상화가 은폐한, 언어의 역사성과 계급성을 훌륭하게 복원하고 있다. 이 책에는 메드베데프, 볼로시노프 등 일명 '바흐친 학파'가 수십 차례 토론을 거듭하며 책을 완성해간 흔적들이 역력하다. 그 결과로 나타난 러시아 학자들의 시원시원한 논리는 이 책을 어렵게만 볼 수 없게 하는 매력이다. 언어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은 오늘날에도 무척 신선하다. 하루라도 빨리 이 책이 복간되길 기다릴 뿐이다. —강성민 기자